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

서미아¹ · 이영자²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가족상담학과 조교수¹, 우송정보대학 간호과 초빙교수²

Psychosocial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Seo, Mia¹ · Lee, Young Ja²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Family Therapy,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and Law, Dankook University,

²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osong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may increase the likelihood of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The factors included depression, individuality, relatedness, cognitive deconstruction, social desirability, and alexithymia.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4 to May 29, 2009 from 1,519 adolescents who were conveniently selected from five different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and interpret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with the SPSS/WIN program.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1) More than 30% of the participants had a history of having suicidal ideation while 6.3% had attempted suicide. 2) Suicidal idea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depression, alexithymia, and cognitive deconstruction and negatively related to relatedness and social desirability. 3) Regression analysis showed 29% of variance in suicidal ideation can be explained by depression, individuality, cognitive deconstruction, living with father, living alone, and living with relatives. **Conclusion:** Adolescents with depression, higher individuality, cognitive deconstruction, and not living with their parents require more attention to prevent suicide.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o prevent adolescents' suicide.

Key Words: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Individuality, Alexithymia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해가는 질풍노도의 시기로서 심리적으로 안정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자살과 같은 극단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Statistics Korea Data (2009)에 의하면 2009년도 10대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 1위는 자살로서 인구 10만 명당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자살사고는 곧 자살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안고 있는데 전국의 중고등학생 3,1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Park et al., 2005)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1,434명(46.0%), 자살 방법까지 생각해본 경우가 433명(13.9%),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98명(6.4%)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자살사고를 가진 사람은 미래에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더 높는데 15세에 자살 사고를 가졌던 청소년은 자살사고가 없던 청소년에 비하여 30세에 이르러서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11배나 증가한다(Reinherz, Tanner, Berger, Beardslee, &

주요어: 청소년, 자살사고, 우울, 개별성-관계성, 인지적 왜해

Address reprint requests to: Seo, Mia, Department of Family Therapy,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and Law, Dankook University, Yongin 448-701, Korea. Tel: 82-31-8005-2793, Fax: 82-31-8921-7245, E-mail: miaseo@dankook.ac.kr

투고일 2011년 7월 28일 / 수정일 1차: 2011년 9월 5일, 2차: 2011년 9월 17일 / 게재확정일 2011년 9월 18일

Fitzmaurice, 2006). 이에 십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전략을 강화하고 자살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청소년의 자살은 개인이나 친구 요인으로 학업저하나 이성과의 결별, 또래 친구의 따돌림, 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 등의 문제가 있고 가족과의 갈등이나 가족 기능 장애와 같은 가족 요인이 있다. 또한 임상적으로는 불안, 우울, 물질 사용 장애, 신체적 정신적 질병 등이 청소년의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Sampson & Mrazek, 2001).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중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담당하는 학교 보건교사나 정신보건 전문 요원들이 중재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 청소년기에서 약 18세까지 15%에서 20%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우울증을 경험한다(Lewinsohn, 2002). 자신의 감정을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정적인 정서의 억압을 막는다. 그러나 우울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인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으로 억압하게 된다. 인간에게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적절하게 표출할 것이 요구된다. 감정표현불능은 언어를 이용하여 부정적 정서를 효율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적 위축을 경험하고 실제로 느껴지는 신체의 감각과 자신의 느낌 간에 혼돈을 경험하고 자신의 정서를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Sifneos, 2000). 감정표현불능은 특히 우울과 상관성이 높아 청소년에게 감정표현 불능과 우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자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Lambert & Man, 2007). 그러나 감정표현불능과 자살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개별성과 관계성은 개인 안에 모두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이 두 가지가 조화와 통합을 이루어야 성숙한 심리적 발달을 이루게 된다. 개별성은 타인과는 구분되는 자기만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의미하는 반면, 관계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보와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잘 발달된 개별성과 관계성은 자살과 같은 부정적 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들 요인과 자살사고간의 관계성을 규명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이 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경우 자살과 같은 부정적인 행위는 낮아질 것이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자기 스스로를 실제보다 더 많은 능력과 재능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고 자기 인상을 호의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경향이다.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바람직

한 성인으로 성장하여야 하며 이는 정신 건강의 기초가 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을수록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며 자살 역시 낮았다는 결과(Miotto & Preti, 2008)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이나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바람직성과 자살 사고를 규명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청소년기는 발달상의 과도기적 특징으로 인하여 심리적 혼란을 경험할 수 있으며 때로는 삶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며 명확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질 수 있다. 이 시기에 우울한 정서를 견디기 어려우면 고통스러운 감정과 사고를 없애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인지적 와해가 유발된다. 인지적 와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거부하고 삶에 대해 비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래와 관련된 계획이나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지적 와해는 자살생각과 정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울은 인지적 와해를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Chong & Chong, 2007). 그러나 청소년에게 자살은 인지적 요인만이 아닌 충동성이나 공격성과 같은 성격적 요인이나 우울 등 감정적 요인이 중요한 자살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Lee, Shin, & Lee, 2006) 청소년 자살사고에 인지적 와해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자살은 한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것이기에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영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폭넓은 중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비교적 연구되어지지 않았으나 청소년 자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우울, 감정표현불능, 개별성-관계성, 사회적 바람직성, 인지적 와해 변인들을 조사하여 청소년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들을 규명하여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으

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자살사고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사고의 차이를 규명한다.
- 대상자의 우울, 감정표현불능, 개별성-관계성, 사회적 바람직성, 인지적 왜해 및 자살사고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 대상자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사고 특성을 파악하고, 우울, 감정표현불능, 개별성-관계성, 사회적 바람직성, 인지적 왜해 및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 강북 지역에 소재한 5개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서울시 강북 지역에 소재하는 2개의 중학교와 3개의 고등학교를 편의 추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았다. 자료수집은 각 학교의 보건교사의 협조 하에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전에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와 개인적 정보의 노출을 꺼리는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아도 되며, 연구참여자에게 익명과 비밀보장을 지킨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포하는 것으로 하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대상자의 설문조사는 자기 기입식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3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표본의 크기는 $n = \frac{z_{\alpha/2}^2 \times p(1-p) \times N}{d^2(N-1) + z_{\alpha/2}^2 \times p(1-p)}$ (n : 표본 크기, d : 표본오차, N : 모집단 크기) 공식에 의하여 산출

하였으며 모집단의 크기를 국내 청소년 수 5,375,000명 (Statistics Korea Data, 2009), 95% 신뢰수준, 표본오차를 2.52%로 했을 때 표본크기는 1,512명이었다. 본 연구대상자로부터 회수된 질문지는 총 1,544부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질문지 26부를 제외하고 총 1,519부(98.4%)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우울

우울은 슬프고 외로운 감정과 힘들고 귀찮은 기분 상태를 나타내고 대인관계에서 위축되며 타인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Radloff, 1977), 본 연구에서는 Radloff (1977)가 개발하고, Cho와 Kim (1993)이 변안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우울상태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우울의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도구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전혀 없었다'의 0점에서 '매일 있었다'의 3점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60점까지의 연속형 변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더 높음을 의미하며 절단점은 16점이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였다.

2) 감정표현 불능

감정표현불능이란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Bagby, Parker와 Taylor (1994)가 제작한 Toronto Alexithymia Scale (TAS)을 Shin과 Won (1997)이 변안한 '한국판 감정표현 불능증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University of Toronto의 Graeme J. Taylor로부터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한국판 감정표현 불능증 척도'는 총 23문항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요인은 정서 확인과 정서 각성에서 오는 신체 감각을 구별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2요인은 외적으로 지향된 사고를 측정하며, 3요인은 정서를 표현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2요인은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가 낮은 점과 본 연구 변인 중 인지적 왜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1요인과 3요인 중 변별지수가 높은 요인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0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40점까지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 표현을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79$ 였다.

3) 개별성-관계성

개별성은 분리 지향적 개념으로 자기만의 독특한 정체감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관계성은 연결 지향적인 개념으로 자기와 타인간의 친밀한 유대와 상호의존성을 추구하는 것으로(Kim & Han, 1998), 본 연구에서는 Kim과 Han (1998)이 개발한 척도를 Kim (1999)이 수정한 것을 저자 승인 하에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개별성을 측정하는 15문항과 관계성을 측정하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성은 주장성, 독립성, 자율성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관계성은 친밀성, 공감성, 친화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개별성과 관계성 각각 15점에서 7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별성과 관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개별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61$ 로 나타났다. 관계성의 경우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68$ 이었다.

4) 사회적 바람직성

사회적 바람직성은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수용적인 방식으로 응답함으로써 인정받으려는 응답자의 욕구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Reynolds (1982)의 MC-13 (Marlowe-Crowne 13) 척도를 Park (2009)이 표준화한 도구를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긍정적인 성격특성과 긍정적 응답편향을 측정하는 도구이며 '아니오'의 0점과 '예'의 1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총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3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바람직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58$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56$, 이분형 자료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Kuder-Richardson 20 신뢰도는 .53으로 나타났다.

5) 인지적 와해

인지적 와해는 모든 대상에 의미부여하기를 거부하고 사물과 현상을 피상적이고 무가치한 것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Baumeister (1991)의 자기도피척도(Scale for escape from self, SES)를 토대로 Shin (1992)이 제작한 정상 집단용 단축형 35문항을 저자 승인 하에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지적 와해상태의 특성

인 시간적 조망의 축소, 인지적 경직성 및 구체성, 의미의 거부, 탈 억제, 수동성 및 감정의 결여를 측정한다. 이 도구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총점은 0점에서 35점까지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와해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이분형 자료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Kuder-Richardson 20 신뢰도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 Kuder-Richardson 20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6) 자살사고

자살사고는 죽음에 대한 생각, 죽었으면 하는 바람 및 죽는 방법 등의 계획과 준비를 포함하며 본 연구에서는 Beck, Kovacs와 Weissman (1979)의 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을 기본으로 본 연구자가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살에 대한 바람, 자살 소망, 자살계획, 자살에 대한 막연한 준비,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에 대해 질문하는 5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나 '없다'의 0점에서 '보통 혹은 많이 있다'나 '완전하게 준비했다'등의 2점까지 3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1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였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 .82$ 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자살사고의 문항별 특성은 기술 통계를 이용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사고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고,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자살사고에 대한 기술적 통계

본 연구대상자의 자살사고에 대한 각 문항의 빈도와 평균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죽고 싶은 소망을 가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uicidal Ideation

(N=1,519)

Variables	Categories	n (%)	M±SD
Wanting to die	Not at all	961 (63.5)	0.4±0.62
	In moderate	446 (29.4)	
	In many	108 (7.1)	
Desiring to attempt suicide	Not at all	1,206 (79.6)	0.2±0.52
	In moderate	248 (16.4)	
	In many	61 (4.0)	
Suicidal plan	Not at all	1,048 (69.2)	0.4±0.56
	Thoughts vaguely	402 (26.6)	
	Thoughts in detail	64 (4.2)	
Preparing a suicide	Not at all	1,419 (93.7)	0.1±0.33
	Partially prepared	70 (4.6)	
	Completely prepared	25 (1.7)	
Writing a suicide note	Not at all	1,368 (90.5)	0.1±0.37
	Thoughts only	116 (7.7)	
	Completely prepared	28 (1.8)	

M±SD of total score: 1.2±1.88.

진 경우'에 대해서 '없음'이 63.5%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29.4%, '많음'이 7.1%에 해당하였으며, 평균은 3점 만점에 0.4±0.62점이었다. '자살을 시도하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6.4%였으며 '많음'이 4.0%에 해당하였고, 평균은 0.2±0.52점이었다. '자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9.2%로 가장 많았고 '막연하게 생각했다'의 경우 26.6%, '세밀하게 생각했다'가 4.2%에 해당하였으며, 평균은 0.4±0.56점이었다. '자살을 실제로 준비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93.7%가 '준비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부분적으로 준비했다'가 4.6%, '완전히 준비했다'가 1.7%에 해당하였고 평균은 0.1±0.33점이었다. '유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0.5%로 가장 많았고 '생각만 하였다'가 7.7%, '이미 작성하였다'가 1.8%에 해당하였으며 평균은 0.1±0.37점이었다. 본 대상자의 자살사고의 총점의 평균은 15점 만점에 1.2±1.88점이었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사고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이 남성은 52.8%, 여성은 47.2%였으며, 연령은 16세 이상이 43.8%, 16세 미만은 56.2%였다. 연구대상자들은 무종교가 41.8%, 경제 상태는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9.5%로 가장 많았다. 부모와의 동거여부에서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83.8%로, '어머니하고 산다'가 9.7%, '아버지하고 산다'가

4.1%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살사고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종교의 경우 '기독교'인 경우에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에 비하여 자살사고가 유의하게 낮았으며(F=2.50, p=.041), 경제상태가 '상'인 경우가 '하'라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자살사고가 유의하게 낮았다(F=12.91, p<.001). 거주상황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친척과 거주하는 경우'보다 자살사고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아버지나 어머니하고만 거주하는 경우는 혼자 사는 경우에 비하여 자살사고가 유의하게 낮았다(F=13.18, p<.001).

3. 사회심리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의 사회심리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3과 같다. 우울은 평균 22.9점, 감정표현불능 32.2점, 개별성 43.1점, 관계성 47.6점, 사회적 바람직성 5.9점, 인지적 외해 10.1점, 그리고 자살사고는 1.2점이었다.

4. 우울, 감정표현불능, 개별성-관계성, 사회적 바람직성, 인지적 외해, 자살사고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 감정표현불능, 개별성-관계성, 사회적 바람직성, 인지적 외해, 자살사고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 Differences in Suicidal Ide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51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803 (52.8)	1.1±1.90	-2.78	.006	
	Female	716 (47.2)	1.4±1.85			
Age (year)	≤ 16	666 (43.8)	1.2±1.79	-1.00	.316	
	> 16	853 (56.2)	1.3±1.94			
Religion	Presbyterian ^a	603 (39.7)	1.1±1.80	2.50	.041	a < e
	Buddhism ^b	118 (7.8)	1.4±2.03			
	Catholic ^c	107 (7.0)	1.2±2.19			
	No religion ^d	636 (41.8)	1.3±1.79			
	Others ^e	55 (3.6)	1.9±2.60			
Economic status	High ^a	47 (3.1)	1.6±2.02	12.91	<.001	a < c
	Middle ^b	1,055 (69.5)	1.1±1.74			
	Low ^c	417 (27.5)	1.7±2.93			
Living situation	Living with parent ^a	1,273 (83.8)	1.1±1.77	13.18	<.001	a < e, b, c < d
	Living with father ^b	62 (4.1)	2.0±2.49			
	Living with mother ^c	147 (9.7)	1.4±1.80			
	Living alone ^d	16 (1.1)	3.4±3.54			
	Living with relatives ^e	21 (1.4)	2.7±3.02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Psychosocial Variables (N=1,519)

Variables	Range	M±SD
Depression	0~60	22.9±12.51
Alexithymia	0~40	32.2±9.04
Individuality	15~75	43.1±5.30
Relatedness	15~75	47.6±6.21
Social desirability	0~13	5.9±2.56
Cognitive deconstruction	0~35	10.1±7.43
Suicidal ideation	0~10	1.2±1.88

Table 4와 같다.

우울($r=.47, p<.001$)과 인지적 와해($r=.37, p<.001$), 감정표현불능($r=.32, p<.001$)은 자살사고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우울과 감정표현불능, 인지적 와해가 높을수록 자살 사고가 증가하였다. 한편 사회적 바람직성($r=-.24, p<.001$)과 관계성($r=-.08, p<.001$)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관계성과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을수록 자살사고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 전에 실시한 제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대상 독립변수의 상관계수가 .8 미만($r=-.24\sim.47$)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다중 공선성 진단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0.610~0.983로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17~1.640으로 기준치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한 Durbin-Watson 값은 0에 가까운 경우 양의 상관을 보이고 4에 가까운 경우 음의 상관을 보이는 반면 2에 가까운 경우 잔차들이 독립적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1.929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구학적 변인 중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종교는 '기독교'를 기준으로, 경제 상태는 '상'을 중심으로, 거주상황은 '부모와 거주'를 기준으로 더미 변수화하였다. 연구의 주요 변인인 우울, 감정표현불능, 개별성-관계성, 사회적 바람직성 및 인지적 와해는 연속변수로서 그대로 입력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대한 유의한 예측요인은 우울($\beta=.38, t=12.11, p<.001$), 인지적 와해($\beta=.11, t=3.54, p<.001$), 혼자 거주하는 경우($\beta=.11, t=4.48, p<.001$), 아버지 외 거주하는 경우($\beta=.08, t=2.95, p=.003$), 개별성($\beta=.07, t=2.50, p=.013$), 친척과 거주하는 경우($\beta=.05, t=2.14, p=.032$)로 총 변화량의 29%를 설명하였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Study Variables

(N=1,519)

Variables	1	2	3	4	5	6
	r (p)	r (p)	r (p)	r (p)	r (p)	r (p)
1. Depression	-					
2. Alexithymia	.50 ($<.001$)	-				
3. Individuality	-.07 (.011)	-.01 (.684)	-			
4. Relatedness	-.18 ($<.001$)	-.12 ($<.001$)	.22 ($<.001$)	-		
5. Social desirability	-.36 ($<.001$)	-.33 ($<.001$)	-.03 (.347)	.15 ($<.001$)	-	
6. Cognitive deconstruction	.51 ($<.001$)	.51 ($<.001$)	.04 (.120)	-.24 ($<.001$)	-.33 ($<.001$)	-
7. Suicidal ideation	.47 ($<.001$)	.32 ($<.001$)	.04 (.092)	-.08 (.004)	-.24 ($<.001$)	.37 ($<.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N=1,519)

Variables	β	t	p
Depression	.38	12.11	$<.001$
Individuality	.07	2.50	.013
Cognitive deconstruction	.11	3.54	$<.001$
Living situation (with father) [†]	.08	2.95	.003
Living situation (alone) [†]	.11	4.48	$<.001$
Living situation (with relatives) [†]	.05	2.14	.032
Adjusted R ² =.29, F=30.37, p<.001.			

[†]Reference group: Living situation-with parent.

논 의

본 연구는 사회심리적인 변인으로서 우울, 감정표현불능, 개별성-관계성, 사회적 바람직성 및 인지적 왜해가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죽고 싶은 소망, 자살시도 욕구, 자살계획, 자살준비, 자살의도를 남김 등의 자살사고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현재 죽고 싶은 소망을 가진 경우가 36.5%, 자살을 시도하고 싶은 욕구 20.4%, 자살 계획을 세운 경우

30.8%, 자살을 준비한 경우 6.3%, 자살의도를 남긴 경우 9.5%였다. 이는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위험수준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는데 중·고등학교 청소년 71,10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 et al., 2002)에서 자살사고 30.7%, 자살 시도 5.3%임을 볼 때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자살사고를 설명하는 회귀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종교와 경제상태도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종교는 기독교인 경우에, 경제 상태는 상인 경우가 자살사고가 낮았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으로서 교육정도, 결혼상태, 혼자 거주하는 경우, 종교 등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간에 차이가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et al., 2011). 특히 본 연구에서 흥미 있는 결과는 청소년의 거주 상황은 자살사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보다 친척과 사는 경우 자살 사고가 유의하게 높았고, 청소년 혼자 사는 경우가 편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보다 자살사고가 높았다. 특히 부모와 거주하는 상황을 준거변수로 했을 때 아버지와 사는 경우, 혼자 사는 경우, 친척과 사는 경우는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자신의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 자살 시도가 더 높다는 보고(Nrugham, Holen, & Sund, 2010)와 일관성 있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비록 가족 간의 갈등 요인이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제공하여 자살 사고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601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충동적 자살 생각에 대한 예측 모형을 구축한 연구에서(Shon, 2009) 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의 지지로 구성된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총 효과가 유의하여 충동적 자살 생각을 낮추는 요인임을 볼 때 사회적 지지 요인을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포함할 것과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부정적인 정서를 바람직한 방법으로 표출하는 일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우울과 감정표현불능이 자살사고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평균 22.9점으로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와 Myung (2008)의 결과인 14.9 점보다 높은 점수이다. 이는 대도시 지역 거주 청소년과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의 차이로서 지역적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변인들 중에서 우울은 자살사고와 가장 높은 정의 상관성을 가진 변수이자 자살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인으로 규명되었으며, 감정표현불능 또한 자살사고와 높은 정의 상관을 나타냈다. 본 연구 변인들 중 우울이 가장 설명력이 강한 점은 59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과 애착 문제가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울이 자살 사고를 유발하는 근원적인 요인이라고 한 결과(DiFilippo & Overholser, 2000)와 일치한다. 이에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과 신체 감각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더 많았다는 결과(Lambert & Man, 2007)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감정 표현 불능이 자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을 분석하였으나 부정적 정서가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정서적 억압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Lynch, Cheavens, Morse, & Rosenthal, 2004)를 볼 때 추후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에 또래집단 및 가족과의 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기는 독립성을 가지고 타인과 구분되는 자신의 사고와 가치를 지향하는 개별성을 발달시켜야 하는 반면, 타인과 정보와 가치를 공유하고 원만한 관계 속에서

사회성과 관계성을 발달시켜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개별성과 관계성은 서로 다른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가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개별성은 관계성과 유의한 정의 상관성을 보여 개별성이 높으면 관계성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별성과 관계성은 우울과도 부의 상관을 보여 개별성과 관계성이 높을수록 우울도 낮아짐을 나타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식에서 관계성은 유의한 설명변인이 아니었던 반면 개별성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개별성-관계성과 자살 사고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데는 제한이 따르지만 관계성에 해당하는 우리의식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더 낮았다는 결과(Cho, 2003)는 개별성보다는 관계성이 문제 행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해되어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처럼 다른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는 첫째, 자살사고를 설명하는 회귀식에서 다른 변인들과의 상대적 영향력 속에서 개별성이 좀 더 영향력이 강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둘째, 본 연구대상자가 청소년이라서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사고와 자기만의 세계를 더 중시하는 개별성이 타인의 영향력 속에서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관계성보다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개별성-관계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들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자살사고에 대한 개별성-관계성의 영향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인지적 와해는 자기 통합의 실패로서 지각능력이 감소하고 오직 현재의 다급한 문제에만 주의 집중하게 되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인지적 와해는 청소년의 자살을 설명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329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ng & Chong, 2007)에서 인지적 와해는 우울과 함께 청소년 자살을 38% 설명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인지적 와해는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매개변인이라고 보고한 결과(Cho, 2008)를 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우울과 인지적 와해, 자살사고 간의 경로분석이 필요하며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전략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통합적인 사고를 증진시키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증진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 자살사고를 설명하는 회귀식은 우

울, 개별성, 인지적 와해, 사회적 바람직성, 관계성, 감정표현불능, 아버지와 거주하는 경우, 혼자서 거주하는 경우, 친척과 거주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요인들은 청소년 자살사고를 29% 설명하였다. 이 요인들 중 우울은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이었으며 개별성, 인지적 와해, 아버지와 거주하는 경우, 혼자서 거주하는 경우, 친척과 거주하는 경우가 유의한 설명 변인이었다.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기의 자살은 한번 발생하면 치명적이고 이후 인생을 사는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그 어떤 면에서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본 연구는 청소년 자살에 대하여 그동안 비교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감정표현불능, 개별성-관계성, 사회적 바람직성, 인지적 와해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본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요인들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좀 더 효과적인 자살 예방이나 개입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표본이 서울시에 소재하는 일개 지역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전국적인 단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 관련 요인들에 대한 규명과 함께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과 우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편부모나 친척과 거주하는 청소년과 혼자 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직·간접효과를 규명할 것과 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한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결론

본 연구결과 청소년들의 자살사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들은 우울, 개별성, 인지적 와해였으며 주거 상황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그간 청소년 자살 관련 연구에서 연구가 미비했던 사회심리적 변인들을 실증적으로 확

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청소년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Bagby, R. M., Parker, J. D., & Taylor, G. J. (1994). The twenty-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I: Item selection and cross-valid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8*(1), 23-32.
- Baumeister, R. F. (1991). *Escaping the self: Alcoholism, spirituality, masochism, and other fights from the burden of selfhood*. New York: Basic Books.
- Beck, A.,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 Cho, M. J., & Kim, K. H. (1993).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 (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y Association, 32*, 381-399.
- Cho, S. J., Jeon, H. J., Kim, J. K., Suh, T., Kim, S. U., Hahm, B. J., et al. (2002). Prevalence of suicide behaviors and risk factors of suicide attempts in Junior and high school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y Association, 41*, 142-1155.
- Cho, Y. J. (2008). *Ego-identity, depression, cognitive deconstruct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problem-solving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unghnam University, Masan.
- Cho, Y. K. (2003). A study on the I-consciousness-we-consciousness-relationship between I-consciousness-we-consciousness and individuality-relatedness, psychosocial matur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1), 91-109.
- Chong, Y. J., & Chong, Y. S. (2007).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cognitive deconstruction, perceived support from friends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 67-88.
- DiFilippo, J., & Overholser, J. (2000).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a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attachment relationship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 155-166.
- Kim, D. J. (1999).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ity-relatedness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in cultural context*. Un-

- 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Kim, D. J., & Han, S. Y. (1998). A study of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individuality-relatedness scal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2(1), 71-93.
- Kim, S. W., Stewart, R., Kim, K. M., Shin, I. S., Yoon, J. S., Jung, S. W., et al. (2011). Relationship between a history of a suicide attempt and treatment outcomes in patients with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pharmacology*, 31, 449-456.
- Lambert, A., & Man, A. F. (2007). Alexithymia, depression, and self-mutilation in adolescent girls.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9, 555-566.
- Lee, H., Shin, H., & Lee, K. (2006).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Juvenile delinqu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4(1), 49-62.
- Lee, J. S., & Myung, S. Y. (2008). A study on adolescents' anti-depressive cop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ir depression leve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6), 39-63.
- Lewinsohn, P. (2002). Depression in adolescents. In I. H. Gotlib, C. L. Hammen (Ed.), *Handbook of depression* (pp. 541-553).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ynch, T. R., Cheavens, J. S., Morse, J. Q., & Rosenthal, M. Z. (2004). A model predicting suicidal ideation and hopelessness in depressed older adults: The impact of emotion inhibition and affect intensity. *Aging and Mental Health*, 8, 486-497.
- Miotto, P., & Preti, A. (2008). Suicide ideation and social desirability among school-aged young people. *Journal of Adolescence*, 31, 519-533.
- Nrugham, L., Holen, A., & Sund, A. M. (2010). Associations between attempted suicide, violent life events, depressive symptoms, and resilience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8(2), 131-136.
- Park, J. K. (2009). The construct of the Marlowe Crowne 13 items social desirability scale in Korean adolescence.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 429-439.
- Park, K. Y., Ku, B. Y., Kim, W. J., Song, J. Y., Lee, J. K., & Cho, E. K. (2005). *A study on the Korean adolescent suicide behavior: A report of adolescent counseling issues*. Seoul: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einherz, H., Tanner, J., Berger, S., Beardslee, W., & Fitzmaurice, G. (2006).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s predictive of psychology: Suicidal behavior and compromised functioning at age 30.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3, 1226-1232.
- Reynolds, W. M. (1982). Development of reliable and valid short forms of the 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1), 119-125.
- Sampson, S. M., & Mrazek, D. A. (2001). Depression in adolescence. *Current Opinion in Pediatrics*, 13, 586-590.
- Shin, H. K., & Won, H. (199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Alexithymia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6(2), 219-231.
- Shin, M. S. (1992). *An empirical study of the mechanism of suicide: Validation of the scale for escape from the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Shon, J. N. (2009). A structural model of impulsive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8, 418-430.
- Sifneos, P. E. (2000). Alexithymia, clinical issues, politics, and crime.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69(3), 113-116.
- Statistics Korea Data. (2009). *The statistics of death in 2009*. Retrieved September 10, 2010, from http://kosis.kr/metadata/main.jspc_id=1999038http://kostat.go.kr